

讀書週間に 생각나는 일들

—圖書館과 나의 讀書—

李 春 熙

해마다 가을이 되면 全國的인 行事로 實施되는 讀書週間이今年에도 또 닥쳤다. 讀書週間이 되면 나에게서는 늘 생각나는 일이 몇가지 있다.

× × ×

내가 처음으로 圖書館을 알게된 것은 國民學校 4學年때의 일이다. 그前까지만 해도 나의 讀書物이라고는 실증나는 學校教科書를 除하고는 每月 받아보는 幼年雜誌(幼年俱樂部의 愛讀者였다)와 어린이 新聞(少國民新聞이라는 것이 있었다)이 고작이었다. 그때만 해도(只今도 크게 變換한 것은 없지만) 國民學校에는 讀書施設이 없었다. 어저다가 한 클래스의 동무들이 들고 나오는 漫畫나 童話集을 보면 어떻게 해서던지 그 눈을 피어 빌려보는데 무척 애를 쓰기도 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바로 내 앞에 앉은 반동무 아이가, 只今은 이름도 가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 當時 우리에게 人氣가 높았던 노라루로 漫畫集을 가지고 있는 것을 發見하였다. 이 친구가 어떻게나 慾心꾸러인지 제 책이라면 남은 손도 못대게 하였다. 그러나 꾀잘 자랑을 늘어놓아 반아이들의 입맛을 달게 하였다. 나는 그 책을 빌려 보기 爲해 여러가지로 叢리를 해보았다. 그때 나는 선물로

받은 하—모니카가 하나 있었다. 나는 하—모니카를 들고나와 그 친구에게 자랑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當時의 시골 國民學校 兒童들에게는 하—모니카가 奇異할 程度로 人氣였으니까. 그 친구는 나의 예상대로 하—모니카를 한번 붙어보고 그 책을 빌려 주겠다는 應證을 붙여왔다. 이렇게 까지 해서 나는 기어히 그 책을 빌려 보았지만 단 친구들은 끝내 빌려 보지를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한뎀 웃음기도 하지만 成人이 된 只今도 좋은 책을 보면 탐을 내는 그때의 버릇은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가 4學年때에 市內에 圖書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圖書館을 알게 된 動機도 先生任의 紹介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實際로 圖書館을 利用하게 될때 까지에는 상당한 時日이 걸렸다. 그 圖書館이 位置한 곳은 市內 中心地에 자리잡고 있는 조고만 公園안에 있었다. 日曜日이면 이 公園에서 동네 아이들과 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公園안에 있는 아담한 집 窓가에 늘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나중에 그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을 알았고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 같은 어린애들도 들어가 볼 수 있

는 곳인가를 알기 爲해 나는 몇번을 두고 이 집을 유의해 보았다. 그러나 그 집에 나오고 들어 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른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말끔하게 校服 차림을 한 男女 中學生들이었다. 이내 나는 圖書館이라고 하는때는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關係가 없는 곳인 줄 생각했다. 얼마 후에 나는 그 집에서 나같은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失望을 하고 있었던 나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수 없었다. 나는 혼자 들어갈 勇氣가 얼른 나지 않아서, 놀던 동무와 같이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未知의 世界앞에 나서는 瞬間 혼란 뒤따르는 一種의 不安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圖書館 안으로 들어 가자마자 야단이나 맞고 나올 것만 같아서였다. 우리는 圖書館 玄關 앞에서 門을 열지 못하고, 누군가 들어가면 같이 따라서 들어 갈 생각을 하여 오래동안 서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 보람도 없이 나오는 사람 뿐이었고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緊張이 풀려 우리自身도 모르는 사이에 圖書館 앞에서 떠돌고 놀았다. 드디어 울것이 왔다. 한 圖書館職員이 窓門을 열고, 우리를 向하여 소리소리 지르며, 圖書館 앞에서 놀지 말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꿈은 영 깨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몇일 후 나는 그 圖書館이 있는 公園에서, 바로 우리집 이웃에 사는 中學校 學生을 만났다. 그는 圖書館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꿈은 드디어 實現되었다. 그는 우리를 圖書館으로 인도 해준 救世主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번 失望하지 않을 수 없었다. 門밖에서 그리던 圖書館과는 거리가 멀었다. 책이 없었다. 카아드를

보고, 보고 싶은 책을 골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아드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한편 신기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적어낸 쪽지를 보고, 내다 주는 책, 그것이 어떤 책인가 하고 기다리는 마음, 밝은 햇빛이 흐르는 窓가의 册床에서 첫장을 열어 보는 기쁨, 이 모든 세로움에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 어른이 된기분이었다.

그후 나는 종종 틈만 있으면 圖書館을 利用하게 되었다.

적다보니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것이 내가 圖書館을 처음으로 알게 된 動機였다. 나를 처음으로 圖書館에 들어가게 해준 그 中學生의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혹시 길에서 또는 茶房에서 그를 스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우연한 機會가 있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내 머리속에는 그때의 中學生의 모습만이 남아 있으니 그는 永遠히 만나볼 수 없는 存在가 되어 버렸다.

× × ×

中學校에 들어가서는 世界文學全集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읽어 내리는데 나의 讀書時間을 많이 빼앗겼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재미로 그렇게 熱心히 耽讀을 했는지 苦笑을 禁치 못하지만, 한편 그것이 나의 讀書力과 情緒生活에 어떤 中 績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多幸한 일 같기도 하다.

위-즈워즈는 책을 버리고, 自然에서 배우라고 하였지만, 亦是 讀書는 經驗을 얻는 即 知識活動의 捷徑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기가 讀書를 많이 한 사람中에는 著者의 世界에만 빠져 바보가 되고, 世上을 등지고 人生의 뒤안길에서 自慰만을 하고 사는 者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런가 하

면 쥐꼬리 만큼 아는 知識을 가지고 自己가 읽은 책이 굉장한 立證資料나 되는 것처럼, 맞지도 않는 理論을 固執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危險한 知識이 남에게 害를 입히고, 社會의 癌이 되는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차라리 讀書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아니 讀書을 더 해야될 境遇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妥當한 말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나의 中學校 級友중에 이른바 文學少年이요, 少年哲學家가 있었다. 그는 남달리 讀書에 熱中하였고, 授業時間에도 小說을 읽다가, 가지고 있던 책을 여러 차례나 때웠길 貫錄이 붙은 친구였다.

그는 또한 闊論을 좋아하기도 하였으나 優柔不斷하여 언제나 自己 結論이 뚜렷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항상 悲劇의 그늘이 붙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였다.

어느날 그는 나에게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와서 그 讀後感을 늘어 놓았다. 그의 結論은 自己도 그 主人公과 같은 境遇라면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친구와 밤이 깊도록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얼마후 그는 學校를 途中에서 그만두고, 서울로 갔다. 理由인 즉 자극이 없고 배울 것이 없는 시골이 싫어졌다는 것이었다. 어느날 그로부터 便紙가 날라왔다. 新學期까지는 轉學手續이 안 되어, 그동안 每日 같이 國立圖書館에서 時間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읽을 책이 너무도 많아서 學校에 나가는 것보다는 圖書館生活이 낫다는 사연이었다. 이 書信을 받은 後부터는 그 친구의 讀書生活이 그지 없이 부럽기만 하였다. 萬一 나의 一生이 圖書館에서 책만 읽고 살 수 있는 環境이라면 하는 지나친 讀書狂의 憧憬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一時的인 童心の 發露가 圖書館에 職을 갖게끔 한 遠因이 되었을런지도 모르겠다.

數個月이 지난후 그로부터 색다른 소식이 왔다. 그는 每日같이 만나는 한 女學生에게 自己의 情熱을 다 바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自己는 어쩔수 없는 「베르테르의 슬픔」의 主人公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後에 風聞으로 들리는 消息은 그가 每日 맞난다는 한 女學生은 純粹한 작사상이며, 한번도 말을 건너 보지도 못한 사이이며, 每日같이 맞난다는 場所는 圖書館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女學生의 아버지를 찾아가 大膽하게도 求婚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아버지 되는 이는 怒發大發, 꾸지람을 받고, 나온 그는 이내 自殺을 企圖하다가 司直當局的 保護를 받고 危險한 時間을 謀免했다는 것이었다.

그後 얼마 안되어 6.25 動亂이 있은後 只今까지 그의 消息을 모르고 있다. 結果가 이렇게 되고보면 讀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이와같은 일이 모두 讀書에서 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讀書가 주는 影響이 決코 적은 比重이라고는 할 수 없다. 國民學校 門앞에도 못한 無識한 사람들中 이런 種類의 自殺云云을 別로 들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우리는 無識에 滿足할 수는 없다. 萬一 이 讀書週間に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그에게 또 책을 읽으라고 댈 것이다.

× × ×

어찌하다가 圖書館에 職을 두게 되었다. 圖書館에 있게 되면서 부터는 어떻게 된 일인지 前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책을 멀리하게 되었다. 圖書館에 있으면서 책을 멀리한다면, 일에 忠實하지 못한 怠慢

의 탓이라고 하여도 나는 辯明할 도리가 없다. 그만큼 나는 圖書館 일에 怠慢하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圖書館 일에 너무 忠實한 나머지, 個人的 讀書할 時間을 갖지 못했다고는 할 수 없다.

아무튼 나는 圖書館에 있게 되면서부터는 책한 卷을 제대로 完讀한 것이 別로 없다. 생각하면 저속히 不幸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 뿐이 아니다. 圖書館 生活은 또한 책을 사놓으는 좋은 習慣마저 나트부터 떼앗아 갔다. 나의 書架에는 몇年을 두고 같은 책이 꼬쳐 있을 뿐 늘어 가지 않을었다. 個人的 藏書를 키워보는 趣味마저 잃어버린 셈이다. 나는 萬天下의 愛書家들에게 말하고 싶다. 책을 애끼고 眞正한 愛讀者가 되려면 圖書館안에 들어가서 말 것이라고, 그것이 안되면 적어도 책이 쌓이고 쌓여 있는 書庫만은 멀리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가까이 하면 親해지는 것이 人間の 常情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항상 실증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도 또한 看過할 수 없는 우리의 한 버릇이기도 하다. 가까이 하되 멀리서, 잠깐만 하면서 잡히지 않는 데 魅力은 살아 있는 것인가 보다.

책을 보는 맛은 亦是 내 돈을 내고 사보는데 더욱 熱이 나고 求得키 어려운 圖書를 험드려 밀려보는데 眞味가 있다. 그러나 圖書館과 더불어 生活을 하게 되면, 때로는 書店에서 사보고 싶은 책이 눈에 띄어도, 圖書館에서 볼 수 있다는 安逸한 自己 妥協이 앞서고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圖書館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고만 그 時間을 넘겨 버린다. 이와 같이 圖書館은 나의 讀書에 對한 情性을 길러주는 溫床이 되었다. 情性은 마

치 자라는 植物을 잘가 먹는 害蟲처럼,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外國에 갔을 때, 나는 나에게 있는 이 情性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어느 때 보라도 切實히 느끼게 되었다.

美國에 있었을 때 나는 어느 公共圖書館에서 參考事務를 맡아 볼 機會를 얻었다. 내단에는 參考事務를 못하라고 덤뻐했으나 讀者로부터 參考質問을 받으면 마다 나는 스스로의 讀書不足을 切實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같이 일하고 있었던 분중에 미스·R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 그는 圖書館 책-비스에 투철한 분이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女流 鄉土詩人(이런 말을 쓸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이기도 하였다. 그는 남달리 讀書을 좋아하였고, 그만큼 書誌에도 밝은 분이였다. 每日같이 그는 책에 對한 새로운 知識을 나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圖書가 出版되기가 무섭게 自己 分野에 關係되는 것이라면, 미루는 일없이 밤을 새워서라도 읽어낸다. 같은 同僚들은 그를 가르켜 「活字버러지」라고 까지 부르기도 하였다. 그는 職場에서 參考와 書評의 일로 바쁜 時間을 보내면서도 밖에서도, 讀書클럽에 加入하여 讀書指導에 獻身하는 등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을 爲하여서도 努力을 아끼지 않았다. 讀者로부터 參考質問을 받으면, 遲滯없이 그 對答에 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參考司書의 義務라 하겠다. 그는 이 어려운 義務를 훌륭하게 해냈다. 不幸인지 多幸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때까지 나이 50이 되도록 結婚을 하지 않았다. 같은 職員들은 그의 博識을 稱讚하여 「그는 自己의 男便갈 外는 다 發見한다」고까지 弄談을 하여 한바탕 웃은 일도 있다.

안다는 것, 그러나 똑바로 안다는 것, 確實히 그것은 끊임 없는 讀書과 體驗의 結晶이며, 또한 참고도 먼 길인가보다.

(筆者 成均館大學校圖書館 司書)